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누에고치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9월 30일(월요일) / 장소 : 학관 1층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토론 주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실현되어야 하는가? 목표: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고 알게 된 수많은 기아문제와 계층 간의 갈등 상황을 토대로 책을 읽기 전에 알고 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전적 개념과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조금은 달라진 이 단어에 대한 느낌을 설명하고, '기아'와 '가난'이라는 단어에도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본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현상들과 제도 장치들을 비교하면서 그렇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해본다.</p> <p>1). 토론 주제에 대한 찬반의견(논증문 형식) 강**: 노력을 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난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것이 되고, 재능을 꽃 피우기도 전에 바스려지곤 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가난과 부유의 기준은 상위 1%와 최하위 1%들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위안삼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나 사람이 사람을 가여히 여기고 살아가는 현실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실현되어야 하는가?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보며 이 세상은 왜 부유한 사람은 한 없이 부유하고 가난은 되물림되어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가난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은 '자연도태'라는 단어로 자신이 선택받은 줄 아는 오만한 인간들에 의해 합리화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자연도태'라는 단어를 보며 인간은 모두 오만하고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누군가의 행복을 밟고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실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기능 중 첫 번째는 본보기 작용이다. 세계, 특히 우리나라는 시작의 불꽃이 피는 것은 힘들지만, 한 번 번지기 시작한 불길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단지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선행을 본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이라도 되새김질을 해 준다면 거기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화폐의 유통적인 부분이다. 경제학에 박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p>							

도 자본 순환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자본이 마치 고인 물처럼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경제침체에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류층 사람들끼리만의 소비활동도 작은 웅덩이에서 물이 흐르는 모양일 뿐 이 자본은 영원히 이 작은 웅덩이 안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 기부 등 상류 고위층 사람들의 계층을 아우르는 소비활동이 필요하다.

오늘 날 사회는 사람간의 정을 그리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시대는 각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시대가 점점 사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까지 자신이 일궈온 모든 사유 재산을 타인에 의해 침해받고 간섭받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안타까운 이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베풀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전적 개념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즉, 고귀한 신분은 책임이 잇따른다는 뜻이다.

고귀한 신분에서의 고귀한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책임을 지어야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보면 세계는 현재의 인구의 약 두 배가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다고 한다. 왜 그럴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비만을 걱정하고 있지만 후진국에서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정말 기막힌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FAO나 WFP가 해결할 것이고, FAO와 WFP의 일부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지면 지구가 파괴 될 것이라고 생각으로 지구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유럽 연합은 자국의 농민들을 살려야하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을 높게 유지해야한다.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은 FAO와 WFP의 해결해야할 과제이고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한 지역만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식량의 공평한 분배는 세계시장만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장은 아주 잔인하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절반이 굶어 가고 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식량 분배를 독점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세계 시장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식량을 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식량을 분배해야한다.

아직도 5초에 한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독점하고 있는 것을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안된다. 고위의 직위에 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한다. 세계 시장의 책임은 세계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정**:

노블레스는 본래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주는 의무를 뜻해 주로 귀족들에게 행해지는 말이였다. 하지만 귀족이라는 신분이 사라진 현재,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를 모두 행하였을 때 이 단어를 쓴다. 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자체가 계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기업인이 자신의 재산의 1%인 1억을 한 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보자. 다들 그(또는 그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르며 칭송할 것이고 그가 속한 회사나 단체의 사회적 인식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여기 또 한 예가 있다. 이번엔 B라는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전재산인 1000만원을 한 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보자. 물론 좋은 일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불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사회적 의무는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많고 적음을 가릴게 아니라 그 자체의 기부의 초점을 뒤야한다. 그러므로 난 단어 선택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지도층이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반드시 도덕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개인 혹은 단체의 이미지 관리나 사회적 위치 등 실용적인 이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되어야 할 기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름으로 부유층에만 명예를 주는 강제적인 분위기 조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부를 추구할 욕구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간은 사회적 헌신으로 평가받고 또 그 평가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지 절대 그가 속한 계급에 대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노블리스란 계급으로 인간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책에서 나오는 선진국 또한 기부를 행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건 맞지만 그들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불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해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이유는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스스로 그 특권을 박탈함으로써 계층 간의 차이를 극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용어가 특권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2). 핵심 키워드에 대한 개인의 생각(#기아 #가난)

강**:

어느 순간부터 tv나 책에서 나오는 기아와 가난에 대해 무정한 눈빛으로 보게 된 것 같다. 인간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적응도 빠른 동물이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 누군가는 견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가난'은 당연시되어서는 아니 되고 '기아'는 한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의무를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김**:

기아와 가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잘 모르고 지내왔다. 사람들은 기아의 실태를 아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긴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와 정부와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아문제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기아와 가난의 현실은 참혹한 이 세계는 너무 삭막하고 자본주의의 세계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정**:

1999년 기준 '심각한 기아 상태'와 '만성 영양실조'까지 합하면 8억 28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약 16배가 훨씬 넘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 여기서

총 식량 조사결과 지구 전체의 식량이 70억 인구수에 두 배가 넘게 남아있
다니 아이러니하다. 척박한 토지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진 것도 식량부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식민지 생활부터 이어진 서양의 독
식 때문에 '식량 빈부격차'가 더욱 가속화된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뿌
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기아 역시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다. 2019년 현재 유니세프 등 다양한 후원단체에서 기아에 관해 관
심을 높이는 지금 우리나라도 관심을 높이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SNS서 이슈가 된 이유 분석 및 고찰

강**:

일단 이 책의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제목인 것 같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말은 기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이 제목을 보았을 때 공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책의 제
목은 개인의 '양심'을 건드리기에는 좋은 대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슈화
되기는 좋았을 것이다. 또한 책의 내용 구성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
누는 식으로 전개되고 독자가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들이 재질문하는
식으로 보기 간편하게 나타내어 가독성을 높인 것 같다.

김**:

우선 책 뒷면에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은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
는데 5초에 한명씩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가?'라고 적혀있다. 처음에는 이것
을 보고 이유가 궁금해서 이 책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아와
가난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고 아빠와 아들이 질문과 답하는 대화체의 내
용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아들이 질문하는
것에 거의 내가 궁금해 하는 질문이 있어서 바로바로 답을 알 수 있고 기
아와 가난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독도서가 된 것 같다.

정**:

웁긴 이의 말을 살펴보면 월드비전에서 사람들이 뽑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파괴, 전쟁, 에이즈 순이라고 한다. 기아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하
지만 난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관심 없던 만큼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등 후원단체에서 대중매체에 항상 소개가 되었고 많
은 개인이나 단체가 기아 문제를 알리기 위해 sns를 이용하여 많은 대중들
이 이를 알고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4). 토론 후 느낀 점

강**: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처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배웠다. 그때
처음 이 단어를 보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누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과 똑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자금과 같이 심도 있게 생
각하여 나온 결론은 절대 아니다. 이유가 크게 있냐고 한다면 그저 수업 시
간 활동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윤리적 이유가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고
기아와 가난이 그저 막막하게만 다가왔기 때문에 굶주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책을 읽고 심각성을 되새기며 생각하니 전과는
전혀 다른 이유의 근거가 나왔고 현실에서의 마음가짐또한 새로웠다. 이 토
론을 통해 다른 이와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나의 인격 소양을
새롭게 다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다.

김**:

친구들과 토론 후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나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에 맞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의 반론을 들어보니 고위층에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의무가 있지만, 의무의 무게차이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같은 의견을 가진 친구는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화폐의 순환을 유동적으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되새김질을 해주면 더 좋은 혁명이 시작 될 것이라 생각했다.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니 생각 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더 좋은 세계를 위해 나아가는 멋진 의견들이다.

정**:

글을 읽고 가난과 부유함의 참혹함에 공감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이 불러일으킨 자연도태설 자체는 아예 잘못된 일이다. 이를 베풀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자본주의를 없앨 사회주의사상으로 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그를 제어할 것은 자신의 몫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만큼 눈앞의 자신의 이익보단 주변 국가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기아의 가장 큰 문제인 식량문제를 언급하여 주장한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자신들만 독점하고 있는 남은 식량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 분배해준다는 것에 동의한다. 의무를 다해라는 뜻의 오블리주 자체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기아문제를 해결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5). 토론 후 활동

-도서 팸플릿 만들기

2019 년 9 월 30 일

참가자대표 : 강**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누에고치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요일) / 장소 : 학관 1층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p> <p>토론 주제: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p> <p>목표: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를 읽고 노인들의 문맹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 장치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반을 나누어 토론해본다. 그리고 ‘문맹’, ‘교육’이라는 단어를 개개인의 생각으로 풀어내어 이야기해보며 문맹률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p> <p>1). 토론 주제에 대한 찬반의견(논증문 형식)</p> <p>강**:</p> <p>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글을 읽고 쓰실 줄 모른다. 여자가 글을 배우면 헛바람이 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버지가 글을 못 배우게 하셨고, 항상 이를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할머니 연세쯤이 되면 새롭게 무엇을 배우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자식들 또한 각자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드릴 수 없기에 더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순간이다.</p> <p><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손녀가 치매위험 판정을 받은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의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과정을 기재한 수필 형식의 글이다. 박막례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뛰어넘고 SNS시장을 활보하시며, 70이 넘은 나이에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 손녀, 김유라씨는 이러한 변화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뻗은 손에 응하고 함께해 준 할머니의 용기 덕분이라고 말했다. 너무 감명 깊은 말이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힘든 일생을 살면서 계속 위축되며 살아오신 분들께 먼저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노인들이 박막례 할머니처럼 살 수는 없지만, 교육이라는 도움을 통해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확장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지원 정책을 바라볼 때, 나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p> <p>나의 할머니는 10년 전만 해도 글을 몰라 자식들이 보고 싶어도 그 쉬운 문자 하나를 보내지 못해 구슬피 우셨다. 자신의 무식이 자식들에게 해가</p>							

될까 무섭다고 하셨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배움을 추구하셨던 분이다. 하지만, 지금은 매 주 마을 경로당에서 시행되는 한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셔서 이제는 어설피게나마 글을 쓰실 수 있게 되셨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그램은 집을 나가 거동하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자택에서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아 나는 현재 문제로 대두되어야 하는 것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구축 자체는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즘은 특히나 ‘박막례 할머니(Korean Grandma)’와 같은 소수계층의 유튜브와 같은 SNS활동이 일파만파한 상황이다. 이들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규정되지 않고, 나이, 성별을 넘어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요즘에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단지 한글, 스마트폰 교육 등 생활의 불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의 교육들이었다면 요즘은 공예, SNS,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앞으로의 전망이 더더욱 밝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날 시대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중심 속에서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따라가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들은 단지 이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증거가 이러한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 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

문맹률이란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다. 옛날에는 ‘여성들은 글자와 공부를 배울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박혀있어서 여성들은 글을 쓸 수는 없고 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았다. 하지만 달라진 현재는 남성 여성 모두가 글을 배울 수 있고, 한글이 배우기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다른 나라들 보다 낮다. 하지만, 옛날에 살았던 지금의 노인들은 글을 모를 수가 있다. 지금은 노인 교육 지도사라는 직업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자격증도 존재한다. 노인 교육 지도자는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노인 교육 지도사가 레크레이션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요즘엔 한글을 처음 배운 노인들의 가슴 뭉클한 시도 많이 볼 수 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지도자들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노인 교육 제도의 문제점은 노인교육참여기회가 제한된 노인들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노인이 글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인교육참여기회라는 제한을 두어선 안된다. 또, 노인교육량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증가시켜서 모든 노인들이 글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른 노인 교육 제도의 문제점은 노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미비하고, 사회 인식과 노인교육 전문가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 노인교육프로그램은 레크레이션 뿐 만 아니라 인지활동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전문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는 꽤나 잘 되어 있지만, 노인교육은 문제점이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

고령화 사회는 우리나라에게 크나큰 사회적 붐을 불러일으켰다. 일자리 감소 다음으로 이목을 끈게 복지였고 그중에서도 노인교육을 위한 각각의 노력은 끊이질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의문점이 들었다. 당장 주변의 친가, 외가 조부모님들과 지인들만 봐도 전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교육프로그램은 대학이나 변화가 쪽에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알지도 못할뿐더러 하고 싶어도 거리상에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학교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고 있고, 대부분 교육적 측면보다는 무료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역할이 더 큰 실정이다. 즉,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아실

현, 자기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인복지에 관해 여러 성장을 이룬건 사실이지만 아직 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책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를 살펴보면 문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박막례 할머니) 어렸을 적 막내일 뿐더러 여자였기 때문에 부잣집임에도 글을 배우지 못하게 했으며 결국 혼자 몰래 학원?을 다니며 글을 익힐 수 있었다고 나온다. 그만큼 지금 어르신분들의 유년 시절엔 문맹률이 비교적 높았으며 가난까지 더해졌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노인학교고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어르신들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의 노인학교나 교육프로그램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글쓰기 뿐만 아닌 시대의 흐름의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핸드폰 문자나 컴퓨터 타자 등 현실에서 더 많이 쓰는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면 교육제도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2). 핵심 키워드에 대한 개인의 생각(#문맹 #교육)

강**:

문맹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다. 단지 우리들은 먼 개발도상국의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어떤 이들은 문맹률이 낮은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 하며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장, 조금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를 지탱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쭙었을 때 글을 모르신다고 주장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의 수치화된 결과만을 들이밀며 뿌듯해하기 이전에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아픔에 공감하며 교육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 사회가 차갑게 변해가고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김**:

문맹이란,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말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뜻을 이루는 "표음문자" 라고 할 수 있어서 한글이 배우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노인들의 문맹률 또한 그렇지 않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을 더 만들어야 하고, 전문성을 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한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한다.

정**: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적은 나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굳이 문맹인을 뽑자면 6.25전쟁을 사이로 살아오신 어르신분들이 아닐까 싶다. 전쟁으로 인해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으며 배울 수 있었다해도 그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는 더욱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이로인해 생겨난게 노인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인데 확실히 어르신들이 배우며 문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게 사실이지만 아직 교육도 못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

교육은 간단히 국수사과영으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닌 시대의 흐름에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이 아이이든지 어르신이든지 말이다. 최근 모두 갖고 있는 휴대폰의 사용방법을 알려줘도 좋고 특히 아이들에게 넓은 분야에 진로와 교육을 가르쳐줘 세상을 넓게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3). SNS서 이슈가 된 이유 분석 및 고찰

강**: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라는 점이고,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보유할 수 있었던 점은 이 유튜버가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바람을 불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박막레’ 할머니가 유튜버가 되기 전까지 핸드폰을 어색하게 보시는 노인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여 SNS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세대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충분하였고, 노령계층에 대한 인식과 대하는 태도 등을 남달리 하게 만들었다. 또한, 치매위험 판정을 받은 할머니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며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손녀PD의 역할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박막레,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 책의 주인공인 박막레 할머니는 현재 유튜브에서 유명한 유튜버이다. 아마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면 거의 다 알만 하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라는 세계에서는 70대 할머니가 유튜버라는 사실은 놀라울 것이다. 그만큼 노인들이 유튜브를 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유튜브에선 볼 수 없는 박막레 할머니의 과거가 잘 나타나 있다.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다. 후반에는 손녀딸과 유튜브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즐거운 인생을 재밌게 풀어져 있다. 조금 두꺼운 책이지만 책이 읽기 쉽고 사진과 설명이 많고 재밌어서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다.

정**:

노인복지는 원래도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었지만 확실히 그 시작점을 알린건 이 책 때문이다. 최근 sns에서 가장 핫한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막레할머니와 그 손녀 김유라양이 낸 책이기 때문에 이미 sns상에선 유명하고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던 책이다. 또한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박막레 할머니에 대해 공감하고 노인복지에 관해 관심을 더욱 갖게 됨으로써 이 주제가 핫해지는데 기여했다.

4). 토론 후 느낀 점

강**:

사실 이 토론 논제를 함께 구상한 이유는 이 책을 읽고, 각자의 상황에 따른 반성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행하였던 행동에 있어서 자신과 책의 저자와의 차이점에 한 번 반성하고, 그들의 일생에 새로운 변화는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교육을 떠올려 합의된 논제였다. 토론을 하기 전 발제와 주장들이 너무 정에 근거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한 것이 무색하게 이전까지보다도 더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볼 수 있었다. 더욱이 단지 이 교육의 의무를 국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더 개선된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활동 시간이었다.

김**: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낮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노인들의 문맹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왜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높았는지 찾아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정책에 대해 잘 몰랐다.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노인들의 문맹 및 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 책을 읽고 노인의 문맹과 교육에 대해 알아보니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인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노인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해결방법을 찾아보았다.

정**: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아직 20살이 나에겐 어려운 질문이다. 난 그 대답을 이 책이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박막레 할머니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가지각색의 일들이 요동친다. 그 시련을 극복하고 지금의 유튜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도전이 아닐까 싶다. 할머니가 글을 잘 몰라도 노인교육제도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할머니의 끊임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복지 교육제도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다.

5). 토론 후 활동

-도서 팸플릿 만들기

2019 년 10 월 21 일

참가자대표 : 강**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누에고치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10월 28일(월요일) / 장소 : 학관 1층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TEXT(클라우드 슈밥)</p> <p>토론 주제: 4차산업혁명은 현재 지속화되고 있는가?</p> <p>목표: 4차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일부 사람들은 아직 4차산업혁명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슈밥의 '제 4차산업혁명 The next'을 읽는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사전에 학습하고 이 책과 비교하여 4차산업혁명 발생 여부에 관해 '4차산업혁명은 현재 지속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section 2의 목차를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키워드를 선택해 깊게 살펴보고 필요성과 발전과정, 자신의 역할에 관해 탐구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 혁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한다.</p> <p>1). 토론 주제에 대한 찬반의견(논증문 형식)</p> <p>강**:</p> <p>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4차산업혁명'이란 흔한 단어가 되었다. IT관련 매체들을 보면 모두 지금의 변화를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소리 높여 추앙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력에 대해 경애를 표한다(설령 이러한 기술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말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물론 혁명 시기가 정확하게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근 20년간 IT기술은 확실히 급성장하였다. 그렇다면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p> <p>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새로운 신기술의 유입에 흥분한 이들의 선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올 때마다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생산방식의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왔다. 물론 선이 없는 전화기를 가지고 네트워크 망이 연결되어 빠른 정보처리가 가능해진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3차 산업혁명을 통해 확산된 기술이 발전된 양상이라고 생각한다.</p> <p>4차 산업혁명의 주된 키워드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통해 대중들은 엄청난 기술력에 혀를 내두르며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알파고'는 좁은 알고리즘 안에서 방대한 양의 계산을 처리하여 최적의 수를 만드는 기계이지, 인간처럼 사고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성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이 꿈꾸는 인공지능의 모습과는 아직 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AI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4차 산업혁명 시대</p>						

의 도래는 오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녹아 들지 않아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이다. 3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된 기술들은 현재의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더 적다고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임은 알겠으나 아직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시험'단계인 것이다. 오히려 완성되지 않은 이 기술을 불편해하며 걱정하는 이들이 더 많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외치는 것은 조금 더 나중에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논제의 찬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반드시 도래할(찬성 입장으로는 이미 도래한) 시대 양상이다. 산업혁명이 올 때마다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생산방식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제의 옳고 그름의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평가될 문제이지만, 우리들은 이를 맞이하기 전에 미래를 바라보며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김**:

4차 산업혁명이란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드론(Drone)등이 있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발전이 시작되었지만 많은 침체기를 겪고도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은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구글의 어시스턴트 등이 있다.

사물인터넷(IoT)은 internet of thing의 약자로 사전적 정의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이다. 즉, 사물에 네트워크를 통해 IT기술을 적용시켜 사물간의 연결로 데이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의 사례는 NFC가 있다. NFC란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는 뜻으로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1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두 기기를 소통하게끔 해준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예로 들면, 휴대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용이나 결제할 때 카드를 사용해야했지만 휴대폰하나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NFC는 데이터 읽기/쓰기가 모두 가능해서 결제 뿐 만아니라 데이터 전송, 출입 통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기숙사 출입이 이것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량의 각종센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2016년 2월 12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아직 개발 중인 자율 주행차는 머지않아 상용화될 것이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사용되는 화학과 첨단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의 책을 읽고 진로와 관련된 부분인 소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이끄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우리 일상에서 몇 가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화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용화되지 않아서 완전히 4차 산업혁명이 정착한 것이 아니

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초기라고 생각한다.

정**: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네 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3번째 가 바로 '의도를 가지고 개발하기'이다. 무작정이란 말이 없듯이 모든 일에는 의도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간이 들게 되는데 그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길 수도 있다. 종합해보자면 난 4차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section1의 도표1을 살펴보면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 체제가 차지하고 있는 기술 수치는 전체의 1%도 못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전하면서 이상을 막기 위한 법 규제도 늘어날 것이다.

엘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을 살펴보자.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데 tv나 스마트폰 등 여러 볼거리와 정보를 얻는데서 제 3의 물결이라 정의하였고 이미 완전히 자리잡힌 상태이다. 엘빈 토플러가 이 이야기를 제시한지 30~40년정도가 흘러서야 정착했으니 4차산업혁명도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발전하는게 아닌가 싶다. 굳이 따지자면 아직 제 4의 물결까지는 미치지 못한 3점 중후반의 물결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만큼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난 4차산업혁명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으며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차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즉 사회현상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무작정 개발이 아닌 사고하는 배경지식이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혜택과 동시에 많은 제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해결책도 사전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개발을 위한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다같이 발전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2). 핵심 키워드에 대한 개인의 생각(#진로연관)

강**(#미디어아트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실 미술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나 진로로 삼는 것은 이른 시기에 포기하였다. 미술은 다른 분야들 이상으로 재능을 요구하였고, 한 마디로 '미술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 '미디어아트'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었다. 이는 미술가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허구 혹은 사실의 일들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뉴아트(New-Art)' 분야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킴에 있어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이다. 더 이상 소프트웨어는 기술자만의 소양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합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김**(#첨단소재):

첨단소재란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재료이다. 신소재와 나노기술이 유용하게 쓰이지만 나노오염물질은 생태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나노 센서는 사생활 침해와 보안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새로운 소재기술은 폭발물이나 화학무기를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 세계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사회와 기업, 환경이 공통적으로 첨단소

재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첨단소재):**

첨단소재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데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소재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어나는 생태계의 파괴, 건강 관련 외부효과가 국가의 관계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규제를 신경쓰며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 기술 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적인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

3). SNS서 이슈가 된 이유 분석 및 고찰

강:**

먼저 이 책은 '클라우드 슈밤의 제 4차 산업혁명'의 후속작으로 'THE NEXT'가 붙은 책이다. 그러니 앞선 책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중에게 알려지기 좋았던 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배경 및 네트워크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chapter마다 4차 산업 기술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여 추천을 받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개인적으로는 각 chapter마다 정리를 하여 중요한 포인트만을 다시 새겨주어 더 읽기 편했다.

김:**

'클라우드 슈밤의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 우리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일상생활에서도 쓰이고 있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4차 산업혁명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지 제품개발과 자금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정:**

이미 컴퓨터, 기술, 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4차 산업혁명을 필요로 하는 만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게임 분야를 살펴보면 화면에서만 이루어졌던 게임이(2D) VR ,AR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술로(3D) 영역확장을 이루었다. SNS또한 해시태그나 프로그래밍 기술로 각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 큰 화두가 되었기에 4차 산업혁명이 핫해진 이유가 아닐까 싶다.

4). 토론 후 느낀 점

강:**

전공이 소프트웨어이지만, 아직 1학년이라서인지 아니면 전공의 적합성이 맞지 않았던 것인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큰 흥미를 가지고 찾아본 적도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 책을 북클럽 활동의 책으로 선정한 이유도 이 기회에 더 전공에 대한 배경을 다지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예상외로 이 책은 비전공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배경과 기술에 대해 풀어놓았기 때문에 책을 이해하고 토론 주제를 정하여 토론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김:**

아직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아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이번 책을 선정한 후 책도 읽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여러 가지 알게 되었다. 반대 입장인 친구들과 토론을 한 후 반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온전하게 자리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쓰여지고 있다.

정**: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데 최근에 귀추가 되는 사건이 있다면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게임일 것이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고 다들 생각했다. 나도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토론 후 생각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같은' 감정이나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마음에 와닿았다. 결론적으로 난 아직 '애매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엘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이 나온지 30~40년이 지나서야 모두가 인정한 만큼 정착했듯이 4차 산업혁명 또한 시간을 두고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발전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토론 후 활동

-도서 팸플릿 만들기

2019 년 10 월 28 일

참가자대표 : 강**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누에고치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11월 11일(월요일) / 장소 : 학관 1층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베리나)</p> <p>토론 주제: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시위 방법이다.</p> <p>목표: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를 읽고 한국식 페미니즘은 올바른지를 생각하며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시위 방법이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반을 나누어 토론해본다. 그리고 '탈코르셋', '양성평등' 등 단어를 개개인적 생각으로 풀어내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p> <p>1). 토론 주제에 대한 찬반의견(논증문 형식)</p> <p>강**:</p> <p>지금 우리나라에는 여성 인권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에서 일어난 문지마 살인사건 때문이었다. 그 대상은 언제나 그렇듯 여성이었고, 원한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 불특정 대상에 대한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더 불안에 떨기도 하고 분노에 차서 여성인권 탈환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예전부터 가부장적인 체제가 고집되어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단지 타고난 신체적 여건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박대를 당해왔다. 지금의 페미니즘 운동은 그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 반드시 일어났어야 했고,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운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여성 인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 즉 페미니즘 운동은 사회적으로 안 좋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여파도 상당하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시위 방법일까?'에 대해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이다.</p> <p>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지 성별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존중 받기 위해 벌이는 정당한 사회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페미니즘 운동이 비난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양상이 점점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성혐오 사회로 이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정의가 변색되어가고 파생되어 메갈이나 일베 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성 정체성을 뛰어넘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게시글이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이 운동의 근본적인 개념이지 결코, 이 운동이 비난 받아 마땅한 폭동따위가 아니라는 것이다.</p> <p>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여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같은 부모가 되어도 여자만 경력이 단절되는 사회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히려 몇 백 년간 하대와 멸시를 받</p>						

아오며 살아왔던 여성이 하루 아침에 남성과 공존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사회적 대처구도는 앞으로의 사회 혁신을 위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마찰 형상이고, 물론 이 또한 공정하고 당연한 페미니즘 운동을 하며 우리가 바뀌 나가야 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대를 받고 남성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 개혁에 의문을 품기도 하고 동조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이신다. 나는 이렇게 무감각한 모습에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프고, 현 시대를 바뀌나가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을 가지고 혈뜬고 이를 무기로 삼아 휘두르려 드는 사람들일 것이다.

김**:

페미니즘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의 권리 및 사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인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페미니스트가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예전에는 사회가 매우 남성 주의적이고 권위적 이었다. 현재는 이런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중이지만, 조금은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자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위로 올라갈수록 남자가 더 많다. 이것의 이유는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렵다. 만약 어느 한 집단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는 어렵다. 유리천장의 원인은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잘 마련되지 않은 제도 때문이고, 그 피해자는 남성과 여성 둘 다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식 페미니즘은 너무 지나치게 변질되었다. 여성의 입장에서만 성 평등에 접근한다는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주류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동등한 권리의 획득을 주장해 왔으며 성 평등을 여성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까닭은 페미니즘의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평균적인 인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권을 신장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다소 의미가 퇴색되는 감이 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불꽃 페미 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탈의 시위를 하였다. 이런 시위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역차별이 생기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남녀평등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정**:

페미니즘 하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다. 사회적 시선이 나쁜 쪽으로 흘러간 것도 한몫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여성 인권을 넘어 여성우월주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여성 인권이 열악하던 시절, 페미니즘의 활동은 우리 사회를 진정한 평등으로 이끌며 진보하게 만드는 데에 이바지했다. 여성의 투표권이나 노동권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로 빠지고 있다. 여성을 위한 자리나 일정 비율

을 여성으로 채우는 것, 여성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 등 굳이 성차별을 두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까지 그들은 여성한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니 여기서 역차별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일반화' 작업하여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라고 칭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책 저자 배리나는 탈코르셋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한다. 책을 읽어 보면 탈코르셋을 지향하고 시행하는 의도는 잘 알겠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라고 왜 언급한 건진 잘 모르겠다. 배리나작가가 겪고 있는 사회적 시선은 대부분 신체나 외모에 대한 것이다. 뚱뚱해서, 못생겨서 등등... 근데 난 이게 여성이어서 받는 차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상대에 대한 비하는 매우 잘못된 짓이다. 초점은 그녀가 이 이유로 페미니스트가 된 점이다. 남성이어도 차별받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을 책에서 여자로 단정시켜버린 점이 매우 아쉬웠다.

나는 여자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페미니즘 사상이 있는 사람을 많이 접했다. 그중엔 말도 안 되게 페미니즘과는 무관한 특징인을 비꼬면서 여성의 인권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책이나 영화를 소개해주면서 여성의 인권을 같이 키워나가자는 사람도 있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진정한 페미니즘을 이루려면 그 정도와 선을 지키고 상대를 비꼬는 일 없이 같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이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뜬 이유도 그들의 성별이 어쨌든 간에 상대를 비꼬고 헐담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내가 반대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2). 핵심 키워드에 대한 개인의 생각(#탈코르셋 #양성평등)

강**:

'탈코르셋'이라는 단어가 어느순간부터는 '남성혐오'라는 단어와 직결이 되고, 점점 모두가 바라는 양성평등의 길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 무서워지기도 한다. 지금의 변화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빚고,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탈코르셋이라는 단어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넘어서 인간사회 전체로 틀에 박힌 자신의 모습을 깬다는 혁신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자리잡기를 원한다.

김**:

탈코르셋이란 사회에서 여성스럽다고 정의해 온 것들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짙은 화장이나 렌즈, 긴 생머리, 과도한 다이어트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성처럼 숏컷으로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그자체로 받아들여 개성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남녀평등은 반드시 있어야할 것이다. 누군가 다른 이유없이 성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

탈코르셋이란 사회에서 '여성스럽다'라고 정의해 온 것들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예컨대 짙은 화장이나 렌즈, 긴 생머리, 과도한 다이어트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 이 책이 탈코르셋과는 가장 부합하지 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탈코르셋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표현의 자유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여성은 차별받아왔다.' '지금은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 역차별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양성평등은 꼭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그 정도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3). SNS서 이슈가 된 이유 분석 및 고찰

강**:

나는 아직도 '베리나'라는 유튜버의 영상이 처음으로 올라온 때를 기억한다. 뷰티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못생긴 외모였지만, 자신만의 메이크업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질적이지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그녀를 독려하는 이들과 반대로 그저 험뜯고 인신공격을 하며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그녀가 과거에 외모를 통해 겪었던 일들과 현재 SNS서 사람들에게 받는 반응이 비슷했고, 그럼 모습들이 그녀의 용기 있는 행보와 언질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김**: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베리나' 라는 유튜버이다. 이 유튜버는 주로 뷰티쪽에 관심이 많아 뷰티유튜버였다. 하지만 베리나의 유튜브를 처음 본 사람들은 똥똥한데 무슨 화장이냐며 악플을 달아댔다. 뷰티 유튜버중 최초로 페미니스트 영상을 올려 많은 화제가 된 베리나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이 책은 '베리나' 라는 유튜버가 왜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되었는지 아픈 사연이 담겨져있다. 사실 조금 민감한 주제이지만 내용이 잘 전달되게끔 그림도 많아서 지루하지 않게 읽었다.

정**: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페미니즘이고 그만큼 같이 언급되는 것이 이 책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이다. 그만큼 베리나의 행동(책과 유튜브)이 옳다 그르다를 두고 익명성 뒤에 숨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올바른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험뜯는 일도 없어졌으면 좋을 바람이다.

4). 토론 후 느낀 점

강**:

나도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지고 있고,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에 맞서고 지금까지의 사고방식들을 모두 깨버릴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외면하며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래서 요새는 제 3의 성이 된 느낌도 받는다. 여성도 그렇다고 남성도 아닌 제 3의 성의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토론이 내가 앞으로 가지고 행할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줄 조그마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

사실 나는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다.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주위에서 들어도 한귀로 흘러버렸다. 하지만 토론을 준비하면서 페미니즘에 관해 찾아보니 퇴색되기 전 페미니즘과 현재 우리나라의 퇴색된 페미니즘과 너무 달랐다. 나는 예전의 페미니즘을 잘 모르고 퇴색된 페미니즘을 자주 들었어서 페미니즘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옛날에는 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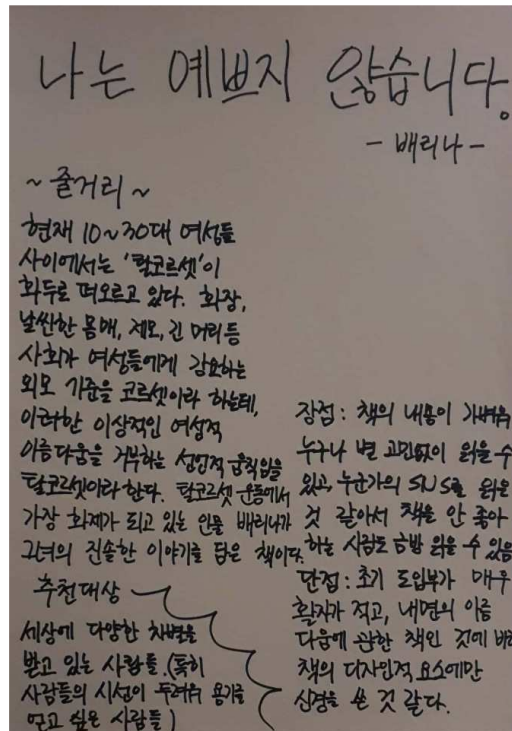
적인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퇴색된 현재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

페미니즘은 본래 여성 인권이 바닥이었을 시절 이를 고치기 위해 나타난 사상으로 비교적 좋은 사상이었지만 이가 과부하 되어 변질하였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지금은 과도기인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줄 거란 말도 있겠지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도를 지키며 남성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페미니즘을 살펴보면 탈코르셋 등 자유성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여성이 굳이 화장을 해야 한다는 법은 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한다거나 사상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모두에게 탈코르셋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화장하는 남자도 있고 화장을 하지 않는 여자도 있는 법이니 말이다.

5). 토론 후 활동

-도서 팸플릿 만들기



2019 년 11 월 11 일

참가자대표 : 강**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누에고치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11월 18일(월요일) / 장소 : 학관 1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90년생이 온다(임홍택)</p> <p>토론 주제: 취업을 위한 대학교 필수과목은 시행되어야 한다.</p> <p>목표: 책 '90년생이 온다'를 읽고 중앙대학교 필수과목인 회계수업('회계와 사회')과 관련하여 '취업을 위한 대학교 필수과목은 시행되어야 한다.'에 대해 현재 대학생 신분인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토론해본다. 또한 공시생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00년대생에 선발주자인 밀레니엄세대와 90년대생들을 비교하여 미래의 취업 방향성을 생각해보며 '취업'과 '세대'키워드에 대해 토론해본다.</p> <p>1). 토론 주제에 대한 찬반의견(논증문 형식)</p> <p>강**:</p> <p>김**:</p> <p>대학교에서 필수과목은 적어도 한 가지씩은 정해져있기 마련이다. 대학교의 필수과목을 왜 들어야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학교는 기업에서 원하는 많은 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 필요한 지식들과 필수과목등을 제시한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18일 "2009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필수과목으로 '회계와 사회'를 신설했다"며 "모든 신입생들은 전공을 막론하고 매주 2시간씩 '회계와 사회'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요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어느 곳 에서나 쓰일 수 있는 회계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상경계열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대학 졸업생이면 누구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기본적인 회계정보를 읽을 수 있으면 대학생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p> <p>우리 학교에서도 필수과목이 존재한다. 사고와 표현과 삶의 큰 질문이라는 두 개의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무조건 들어야한다. 나는 지금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다. 이것을 들음으로써 나는 글을 쓰는 방법과 출처를 남기는 법등을 배워서 과제에 필요한 레포트를 더 잘 쓸 수 있게 되었다. 글자를 쓸 때에 도 들여쓰기, 맞춤법등을 더 주의하게 쓰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이다. 대학교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필수과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배움을 다시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p> <p>지금 시대에 공시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해도 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취</p>							

업난에 못이겨 다시 공무원준비를 하러 공시생이 되는 경우가 수도룩하다. 공시생은 매년 증가해 합격할 확률은 1.8%이다. 90년대생의 부모세대는 70년대생이다. 70년대생은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아 회사에서 짚리는 등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 그래서 90년대생이 안정적인 공무원을 원한다.

00년대생들은 밀레니엄시대 라고 한다. 하지만 밀레니엄세대는 80년대 초반부터 00년대 초반이라 90년대와 00년대는 별반 다를 게 없다. 밀레니엄세대는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의 미래 취업은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개발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취업을 할 쯤 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직업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

더 높은 자리를 꿈꾸는 지금 학업의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취업 경쟁률은 날이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유년 시절엔 다들 다양한 꿈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다들 연봉이 높은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무원을 꿈꾸며 마치 꿈 없는 날파리처럼 서성거린다. 또한 연봉이 낮거나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특정 직업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직업의 귀천이 없는데도 말이다. 오죽하면 “너 공부안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책 ‘90년생이 온다’에서도 비슷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중앙대학교에 회계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졸업 필수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람에게 인문교양을 쌓아주는 취지인 인문학도 아닌데 필수로 선정된 이유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난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갔어도 자기 과와 전혀 반대인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대학진학과 관련 없는 유학이나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필수과목은 필요하지 않다.

난 또한 공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싶다. 물론 처음부터 공무원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꿈을 잃고 방황하다 안정적이게 살고 싶은 마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 합격률은 2%로 공시생을 100명이라 칭했을 때 그중 단 2명만 합격 나머지 98명은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안정성도 있겠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사기업들의 횡포나 무차별한 권위 행사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이대로 가다간 미래엔 청년들의 반 이상이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공시생으로 20~30대를 보내버릴지도 모른다.

난 고등학교 때부터 환경진로를 꿈꾸고 있었지만 현재 신소재공학과에 재학중이다. 원하는 과는 아니었지만 취업이 잘되는 공대를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과가 비슷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요새는 진로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해야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토론에 필요한 관련 서적을 보며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너무 성급히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다.

2). 핵심 키워드에 대한 개인의 생각(#취업 #x,y,z세대)

강**:

김**:

90년대생이 온다’ 라는 책을 읽고 x세대 y세대 z세대등 각각의 세대가 겪

어은 시대를 따라서 취업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지는지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해하기 힘든세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세대라 한다. 자기 중심적이고, 소비에 민감하다고 한다. x세대는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였고 그래서 직접 열쇠를 열고 집으로 들어감 이라고도 불렀다. 이 세대는 사회 공통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심이 약하다고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직장에서의 이런 모습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정**:

취업난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아직 20살을 끝내지 못한 나조차도 취업을 걱정하며 대학교의 전공이나 복수전공은 무엇으로 정해야 할것인지 대외활동은 무엇으로 채워야할건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정도이다. 사회적으로 공무원도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며 진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중이다.

세대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X세대는 70년생, Y세대는 80년생 Z세대는 90년생이라 불리고 있다. “세대 차이”나 “꼰대”라는 말이 있듯이 세대별로 느끼는 방향성이나 큰 사건, 살아온 환경의 차이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 현재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공무원 열풍이 대표적인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 SNS서 이슈가 된 이유 분석 및 고찰

강**:

김**:

이 책은 정보의 공백이 있다. 사실 세대 차이는 언제나 있어왔고, 주변에서 우리는 쉽게 90년생을 마주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90년생’에 대해 궁금하게 된 이유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싶다. 이 책은 ‘어디서든지 90년생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우리의 정보의 공백을 깊이 상기시킨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여겼던 90년생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세대로 느껴지는 것이다. 밀레니얼세대, z세대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세대를 특정 단어로 분류하여 특성을 강화한 개념이지만 오히려 이 같은 개념화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더 궁금하게 만들고, 마치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정보의 공백으로 인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생각한다.

정**:

갓 성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뭘까? 물론 청소년때 못해봤던 술이나 유흥거리도 있겠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취업걱정을 가장 많이 할 것이다. 이책은 취업걱정을 달고 산 20대였던 90년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무엇이 변할건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책이다. 날이갈수록 취업난은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높은 연봉이나 안정성을 원하면서 한쪽에 치우쳐진 취업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취업에 대한 걱정과 정보들을 담은 SNS글이 유행하고 돌면서 중요한 사회적 토픽으로 자리잡고 있다.

4). 토론 후 느낀 점

강**:

김**:

중앙대학교의 필수과목처럼 한 상경계열의 회계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대부분의 기업과 연계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학생이 진로가 똑같다고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면 기업과 연계되는 직업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들어야했던 회계수업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교가 다 그렇듯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문적 가치 보다는 기업에 맞춰진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이 있다.

정**:

공무원 열풍이 불면서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취업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재 중앙대학교의 회계과목은 어찌 보면 맞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로 이대로 가다간 모두 같은 진로를 꿈꾸며 모두 같은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 요새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나와도 갈팡질팡하며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 난 이 필수과목이 학생들의 진로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한것에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딛 첫 발자국이 대학교인데 비슷한 미래만 추구한다면 아이러니할 따름이다.

5). 토론 후 활동

-도서 팸플릿 만들기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줄거리


1990년대생의 꿈이 9급 공무원이 된지 오래다. 최종 합격률이 2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 명이 지원한다. 90년대생은 이제 조직에선 신입 사원이,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가 되어 우리 곁에 있다.

이 책은 몰려오는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이해하게 어려우면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담았다. 또한 2000년 생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시장은 주도할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 하다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

장점:
이탈과 디지털의 무작정 찬란 비판이 아니라 저자는 90년대생들이 어떤 세대인지 90년대생들의 특성과 90년대생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 **상황에서 어떤 이들을 깊게 이해하는 방법까지 책에 우리 밑에 담았다.**

단점:
90년대생들을 이해하는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해 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재미'라는 **문화적인** 것에 부딪힌다.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펼친 이들에게는 너무나 **간지한** 문체에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

추천대상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들과 90년대 ~ 00년대의 **사람들**



2019 년 11 월 18 일

참가자대표 : 강**